

CES2022

What's new @ CES 2022

▶ **임은영 팀장**
esther.yim@samsung.com

▶ **이종욱 수석연구위원**
jwstar.lee@samsung.com

▶ **문준호 선임연구위원**
Joonho.moon@samsung.com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뢰에 가치로 답하다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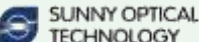


SAMSUNG

PAR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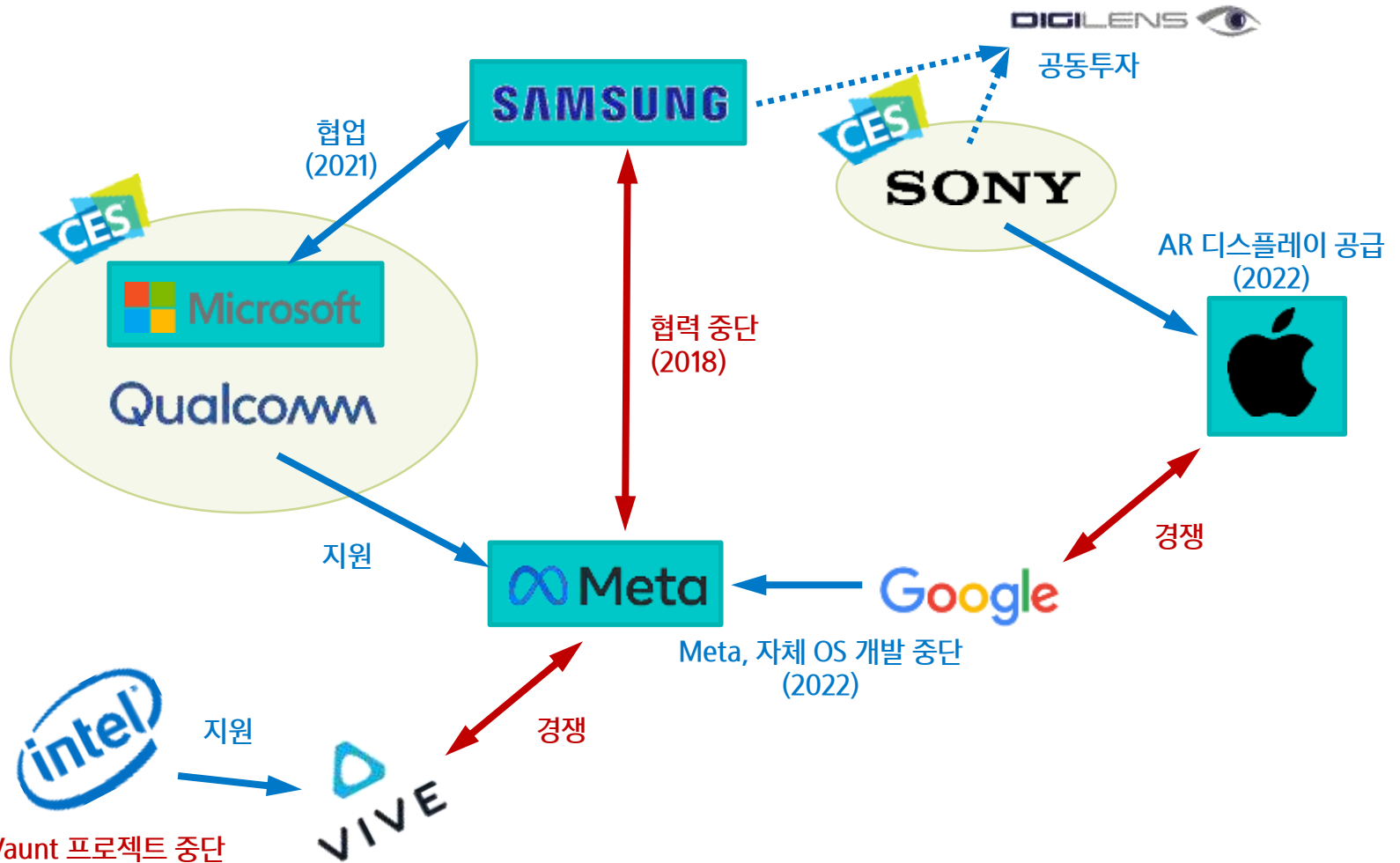
가전과 IoT



AR기기 기술: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기술 확보가 향후 관건

기기				SAMSUNG
AP				SAMSUNG
OS				
디스플레이	SONY	 Japan Display Inc.		SAMSUNG
카메라	 	 		SAMSUNG

메타버스에서의 파트너십, 그리고 CES에서의 업데이트



2018 Vaunt 프로젝트 중단
2020 추가 프로젝트 올스톱

CES 2022에서 선보인 주요 AR/VR 기술들



Panasonic Magane X



LetinAR

LetinAR 글래스



Vuzix Shield
Verizon과 협업



Digilens 2세대
웨이브가이드 공개



TCL LEINIAO AR

TCL Leiniao 안경



Holo Industries
홀로패드 공개

CES 2022에서 HCA의 결성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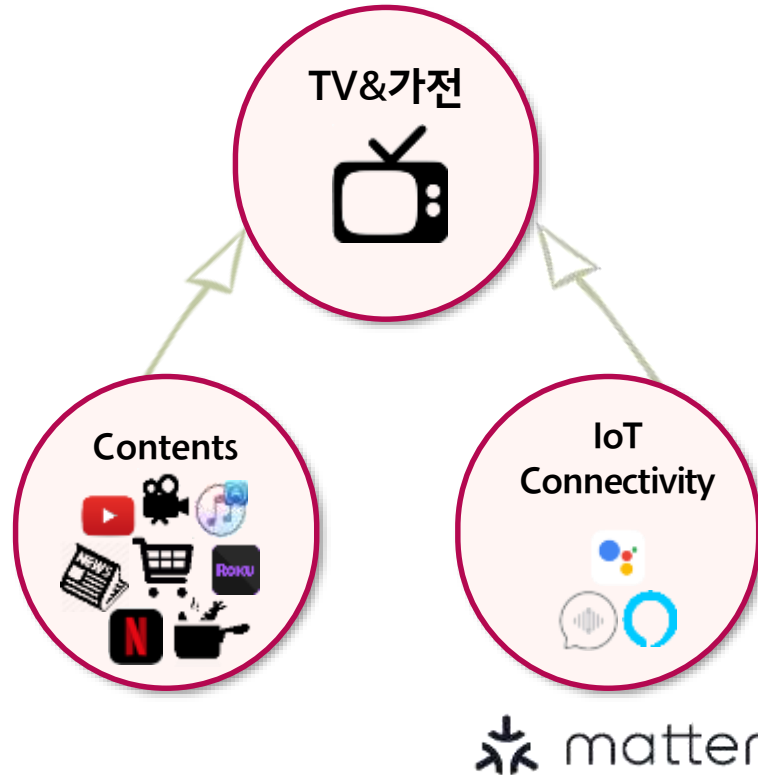


- 1 CES 2022에서 HCA의 결성 첫 발표 (2021년 10월 설립)
- 2 가전 업체간 클라우드와 데이터의 연결에 중점
- 3 다른 브랜드의 가전 제품들이 서로 호환해서 작동하는 것이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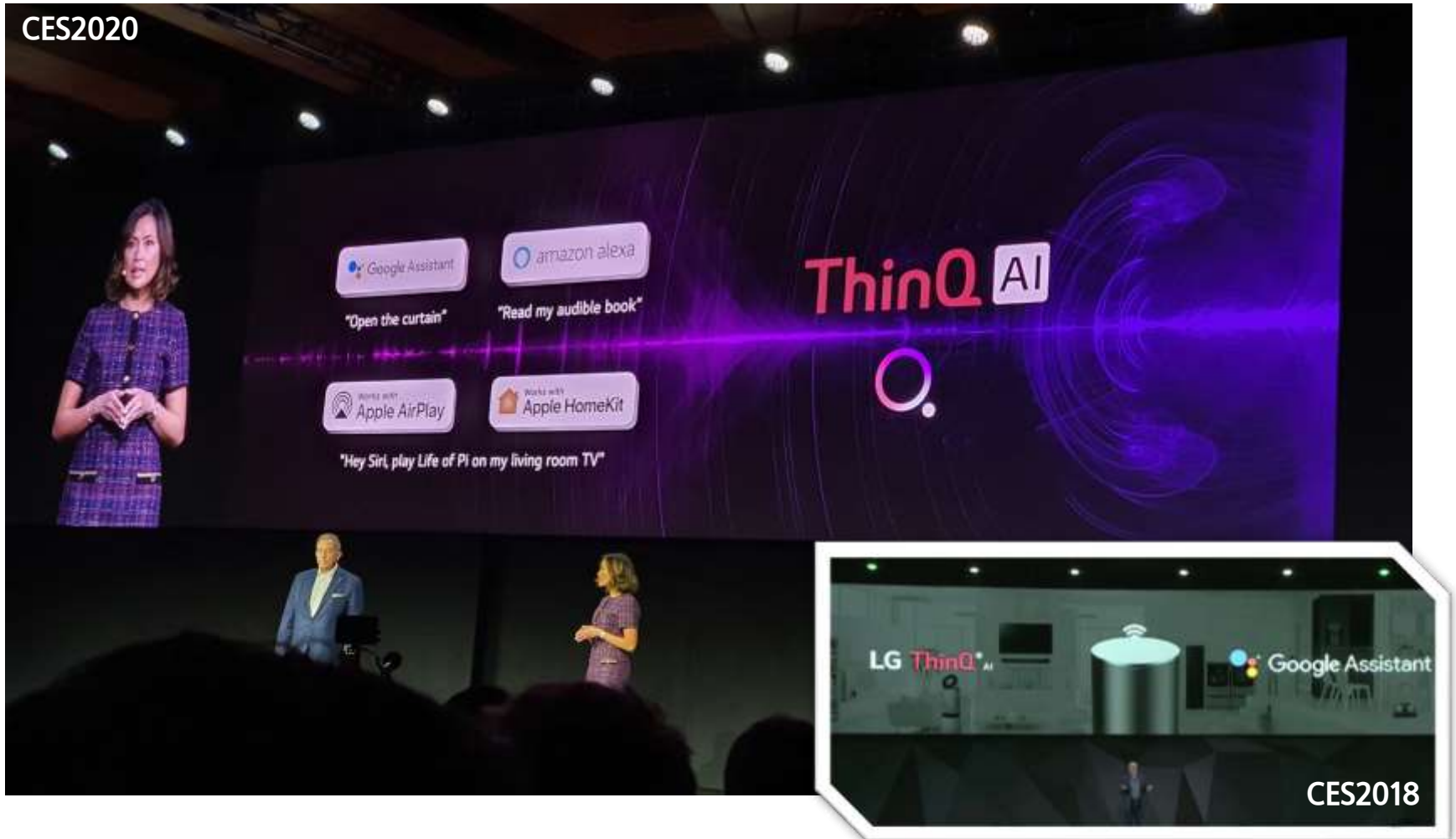
왜 또 연결이 필요했나 → 누가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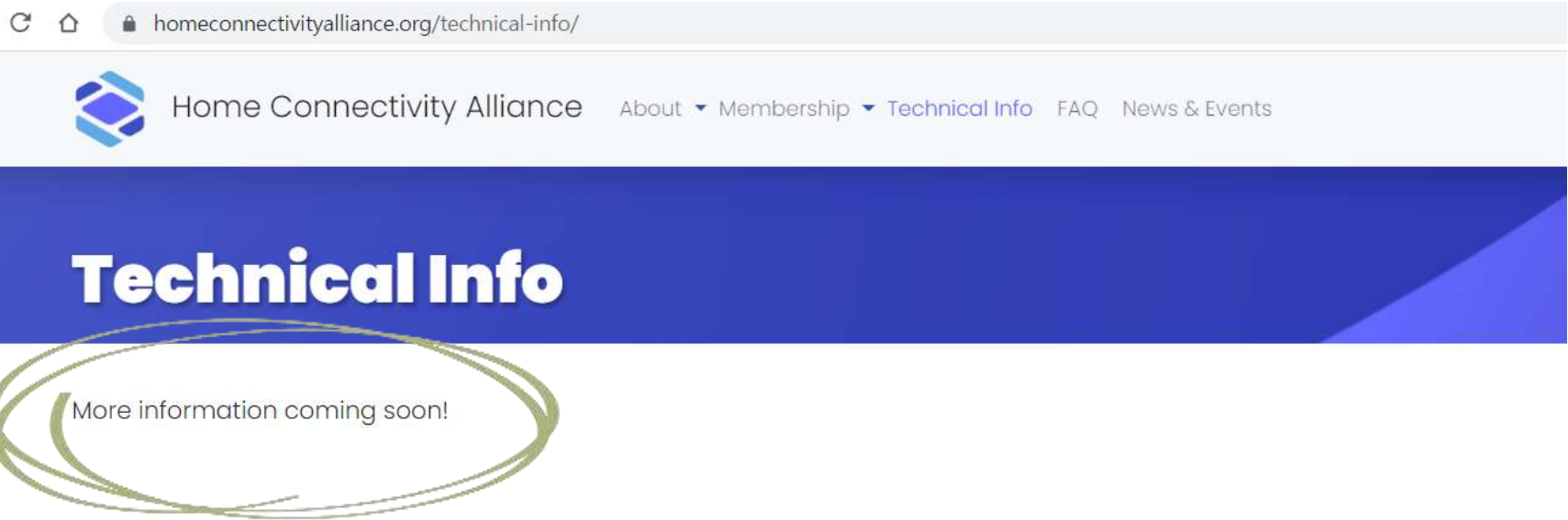
TV와 가전이 서비스 플랫폼에 우위를 점하는 시도



무슨 일이 있었을까? LG TV에 동시에 붙은 세 개의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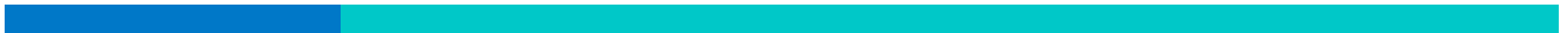
준비가 덜 된 TV 컨소시엄



- 1 만들어진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급조 단체
- 2 호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통일된 프로토콜은 없음
- 3 LG전자와 월풀을 합류시킬 수 있을 것인가
- 4 전구는? 보안은? 음악은?

PART
02

글로벌 반도체



[CES 2022 요약] 새로운 기술 혁신은 없었지만...

▼ CES 2022 요약

Intel

- 1) 12세대 PC CPU (Alder Lake) 라인업 확대
- 2) 외장 GPU Arc, 노트북 업체들에게 출하 시작
- 3) Mobileye의 신제품 예고 + 자율주행 비전 업데이트

AMD

- 1) Ryzen 6000 (기존 세대 설계) 출시
- 2) 외장 GPU 라인업 확대 (저전력 S, 고사양 M 시리즈)
- 3) 3D 데스크톱 CPU와 차기 세대 PC CPU (Ryzen 7000) 예고

NVIDIA

- 1) 데스크톱 GPU 라인업 보강 (초저가, 초고가 모델 출시)
- 2) 크리에이터용 노트북 소개 및 무료 Omniverse 배포
- 3) 자율주행 사업 업데이트 (차량 내 AI 비서+트럭 시장 진입)

[Qualcomm] 새로운 스토리는 있었다. 이제 산업은 4강 구도!

• 과거 반도체 패권 경쟁

2010년대 초반: Intel 원톱 체제 -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는 CPU

2010년대 중반: Intel vs NVIDIA- AI 시대 GPU의 재발견

2010년대 후반: Intel vs NVIDIA vs AMD - AMD의 부활

• 5G만 강조해오던 Qualcomm...올해는 모바일에 대한 시간이 가장 짧았던 CES

• 주요 화두는 Arm PC, AR/VR, 무선 통신 액세스, ADAS



Next-gen Arm PCs

Driving convergence
of PC and mobile

Arm transition + Next-gen CPU
Leadership with Nuvia team



The ticket to the metaverse

Building the next computing
platform with XR

50+ Snapdragon AR/VR
devices launched



Wireless fiber

5G makes Fixed
Wireless Access
a global reality



ADAS

Powering 21st century vehicles

Arriver¹ software and
Snapdragon Ride™ Platform

[Qualcomm] 다양한 파트너십 발표, 신사업의 유망함을 증명

- Arm PC를 도입하는 기업 200개 이상 / Microsoft와 AR 파트너십 확대 / 완성차 업체들과 파트너십 발표

200 enterprises either testing or deploying Windows on devices with Snapdragon



Lenovo

verizon

T Mobile



[Intel] PC CPU 보강, 외장 GPU, Mobileye

- 12세대 PC CPU (Alder Lake) 라인업 확대
- 외장 GPU Arc, 노트북 업체들에게 출하 시작
- Mobileye의 신제품 예고 + 자율주행 비전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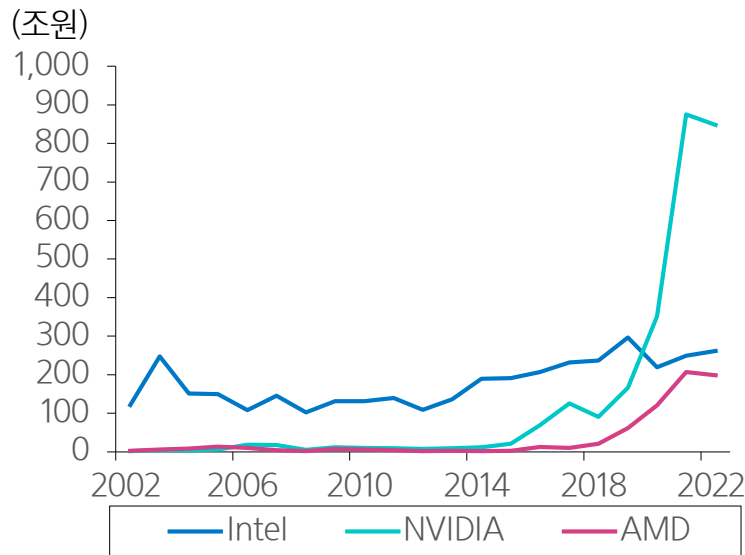


자료: Intel

[Intel]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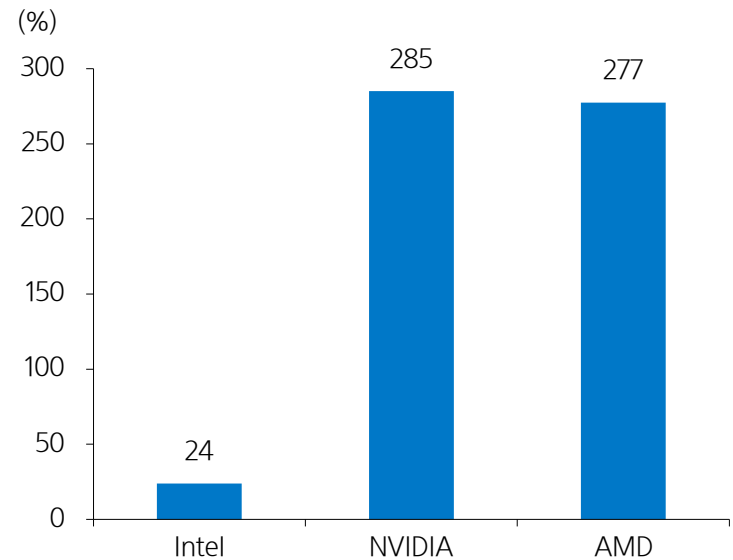
- CPU 라인업 보강을 통해 AMD에 “그동안 내어준” 점유율을 되찾을 것
: Alder Lake 벤치마크가 우수한 가운데,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출시하며 점유율 확대 목표
- 외장 GPU 시장 진출, 프로세서 시장에서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 CPU 이상으로 가속기의 역할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NVIDIA의 GPU 기반 생태계 형성을 견제
: 참고로 CES에서 언급은 없었으나 Ponte Vecchio 등 서버 GPU도 준비 중

지난 20년 주가 추이



자료: Fact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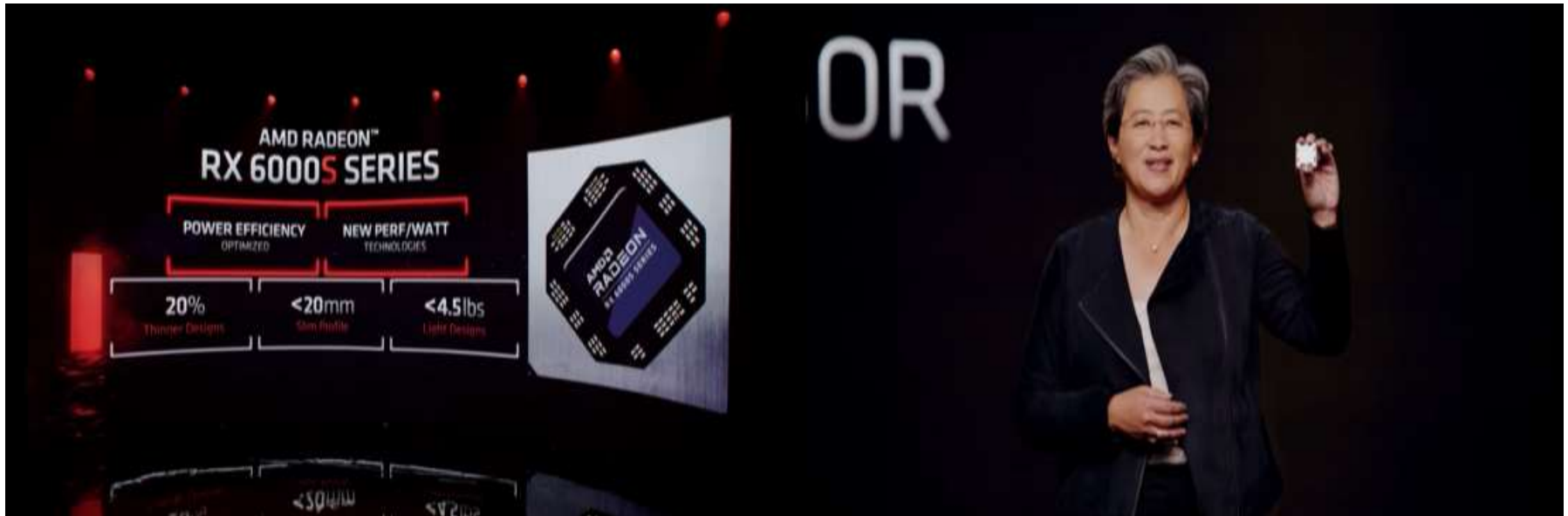
지난 5년간 매출 성장률 (2016 vs 2021E)



참고: Calendar year 기준
자료: FactSet

[AMD] PC CPU와 GPU 라인업 모두 보강

- Ryzen 6000 (기존 세대 설계) 출시
- 외장 GPU 라인업 확대 (저전력 S, 고사양 M 시리즈)
- 3D 데스크톱 CPU와 차기 세대 PC CPU (Ryzen 7000)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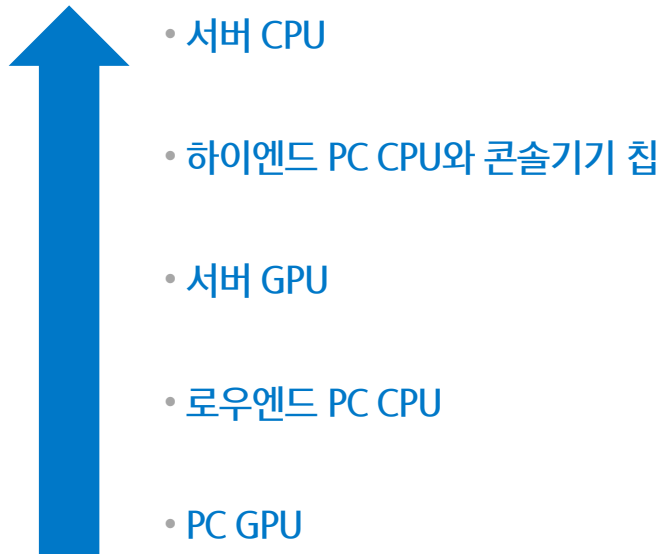


자료: AMD

[AMD] Intel은 잡았고, 이제는 NVIDIA를 잡을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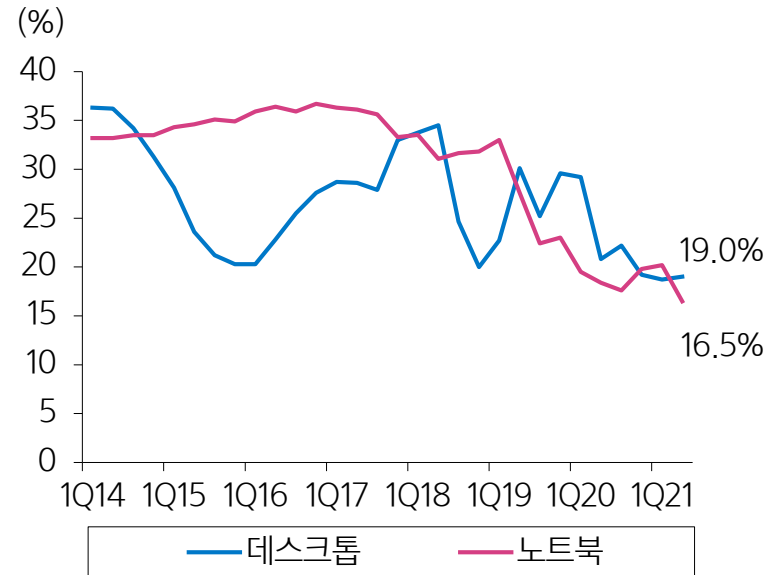
- 한정된 규모 (점유율, capacity)로 인해 그간 하이엔드 CPU 시장에만 선택과 집중
- 이번 CES에서의 라인업 확대는 다양한 수요층을 목표할 것을 시사
- 특히, GPU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며 NVIDIA 추격 목표 GPU

AMD: 사업 우선순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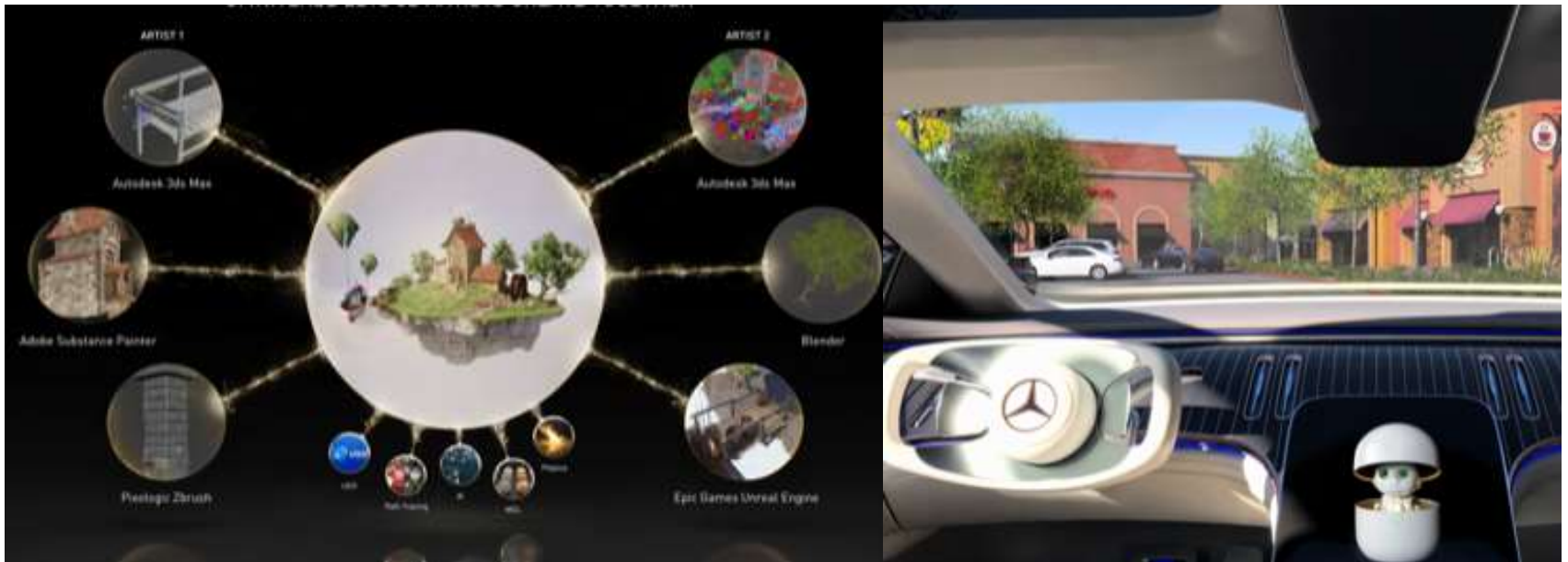
AMD: 외장 GPU 점유율 추이



자료: 언론 보도

[NVIDIA] PC GPU 보강, Omniverse, 자율주행

- 데스크톱 GPU 라인업 보강 (초저가, 초고가 모델 출시)
- 크리에이터용 노트북 소개 및 무료 Omniverse 배포
- 자율주행 사업 업데이트 (차량 내 AI 비서+트럭 시장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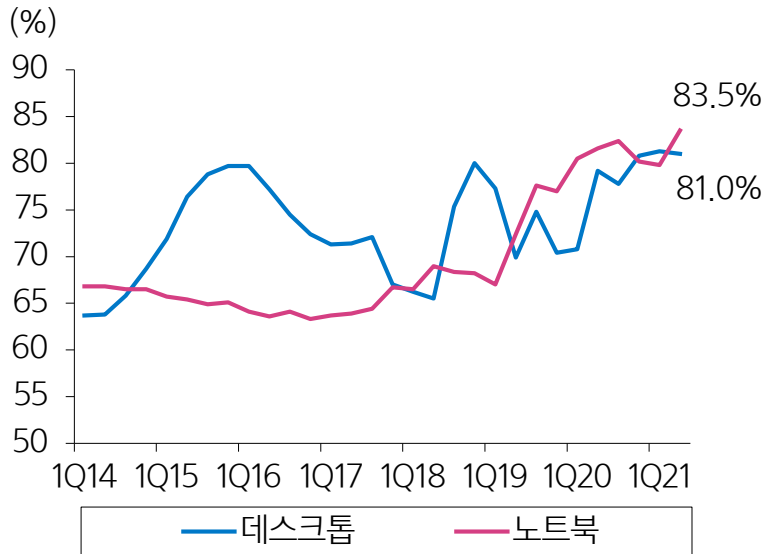


자료: NVIDIA

[NVIDIA] 과거의 Intel 제국을 연상시키는 최강자

- GPU 시장 지배력은 더욱 견고히!
 - : 새로운 초저가 RTX 3050 (239달러) ~ 새로운 초고가 RTX 3090 Ti (최소 1,499달러+)
 - : Omniverse 무료 배포를 통한 생태계 구축
-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 지속
 - : 자율주행 트럭업체 TuSimple과 파트너십

NVIDIA: 외장 GPU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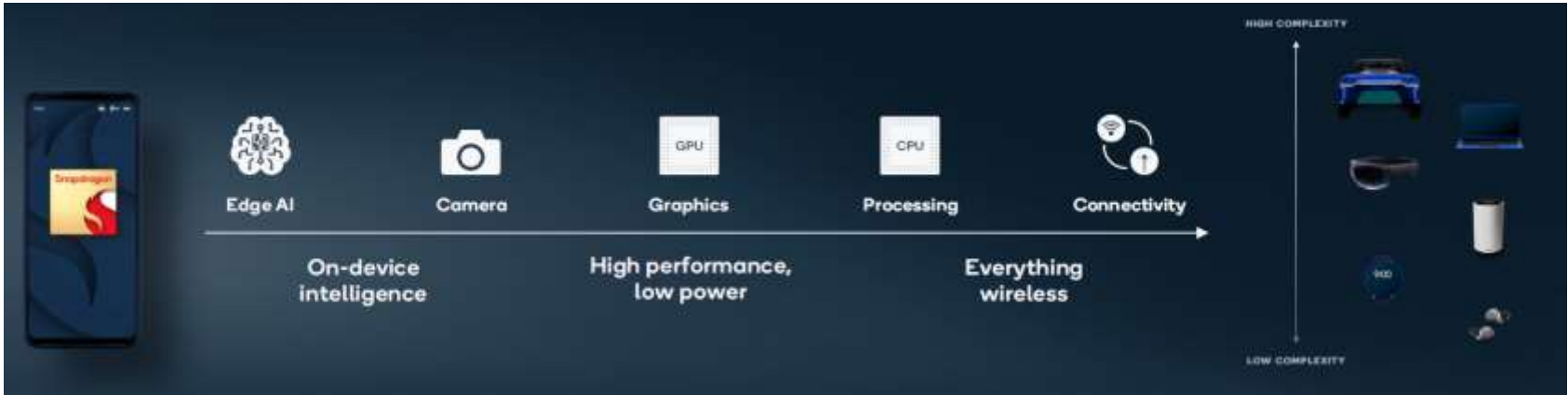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NVIDIA: TuSi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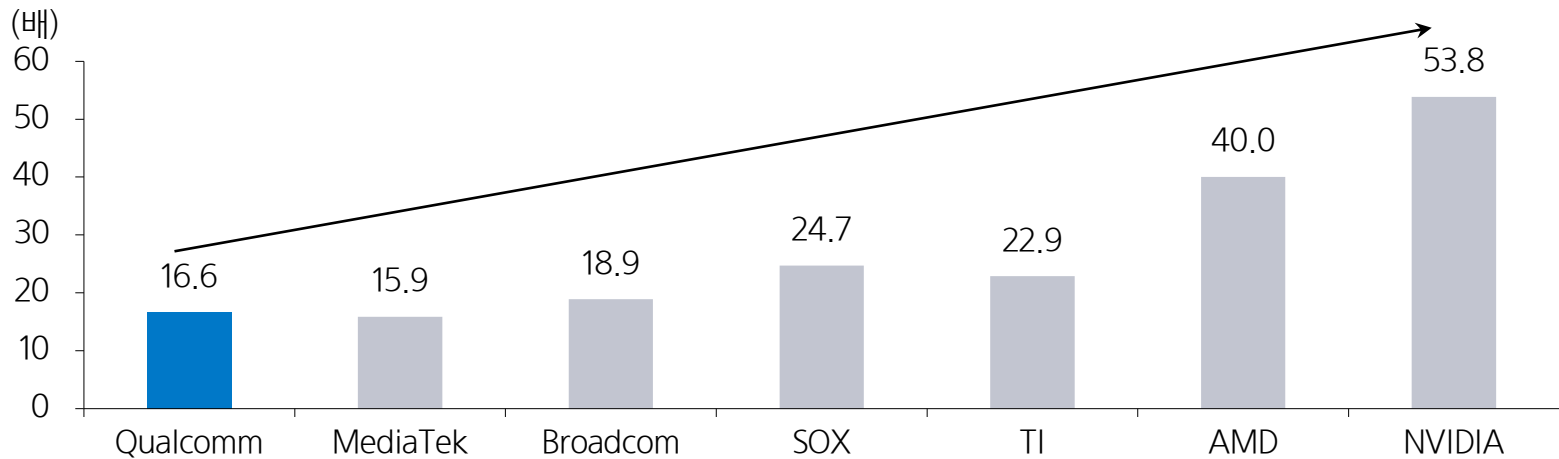


자료: NVIDIA

CES 2022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Qualco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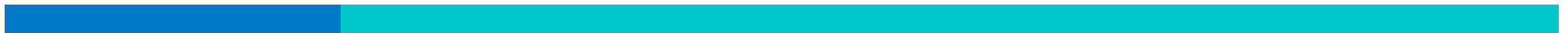
12개월 forward P/E valuation



자료: FactSet

PART
03

Mobility, 가치 재정의와 확장
(feat. 당당해진 글로벌 완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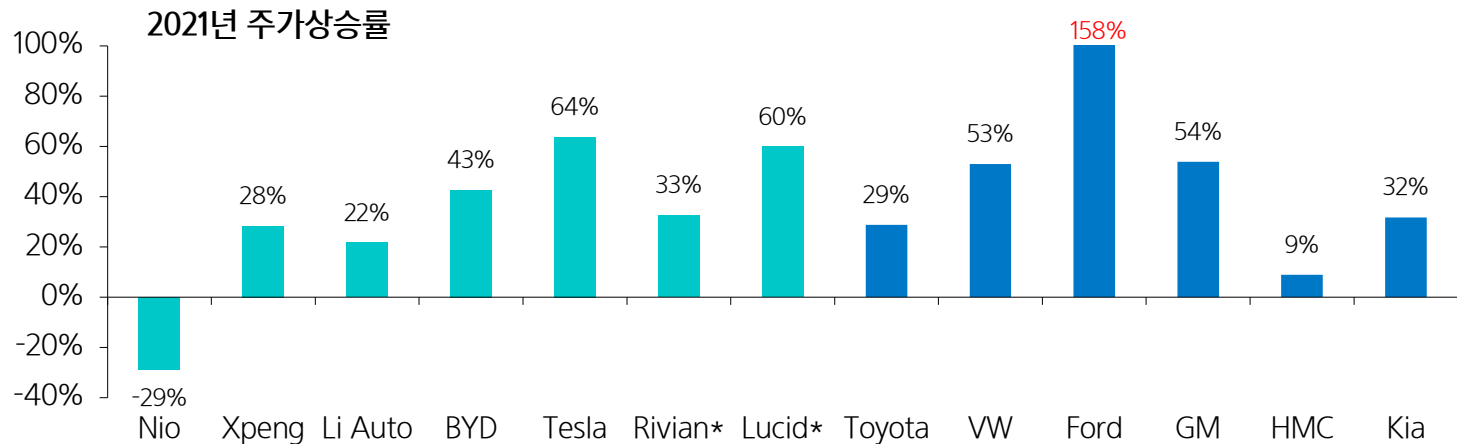
CES 2022 Mobility: Key Take-aways

- 1 저조한 오프라인 참가: 현대차그룹, 스텔란티스 → 온라인 + 회사별 이벤트
- 2 현대차, Metamobility : 하드웨어 영역의 확장 비전
- 3 GM: Ultifi / Bright Drop 사업부의 파트너십 / Silverado, Equinox, Blazer EV



CES 2022 Mobility: Key Take-aw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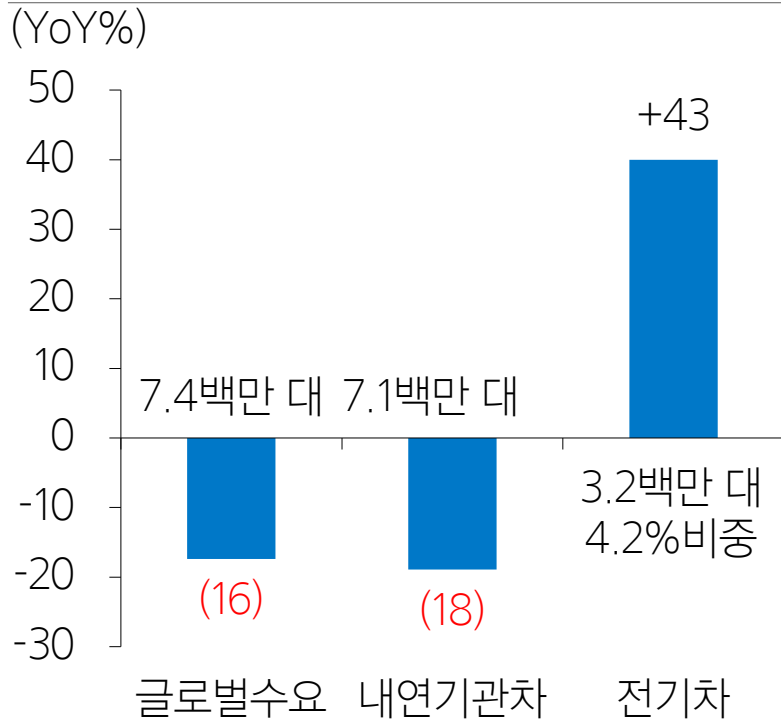
- 1 방향성/차별점을 잡아가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업체: 혼돈의 시기는 끝났다
- 2 실적은 좋고, 시장은 넓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 3 자동차 가치 재정의 + 비즈니스 모델확장 → 글로벌 완성차업체 Re-rating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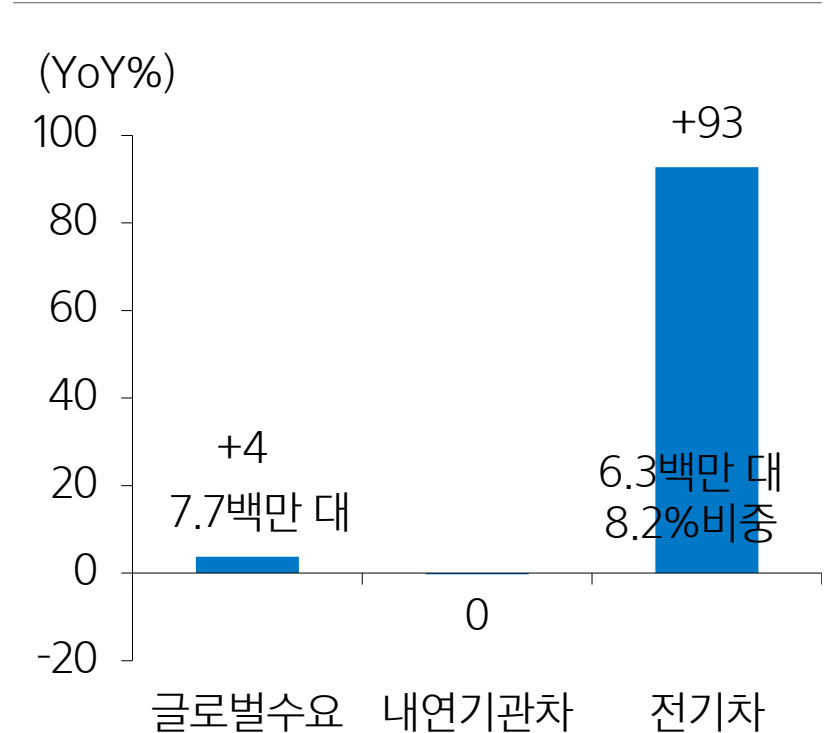
참고: 2021년 12월 31일 종가 vs 2020년 12월 31일 종가 / *Rivian, Lucid는 상장 시점 공모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 환경에 대한 반성 → EV Boom

2020년 글로벌 자동차수요



2021년 글로벌 자동차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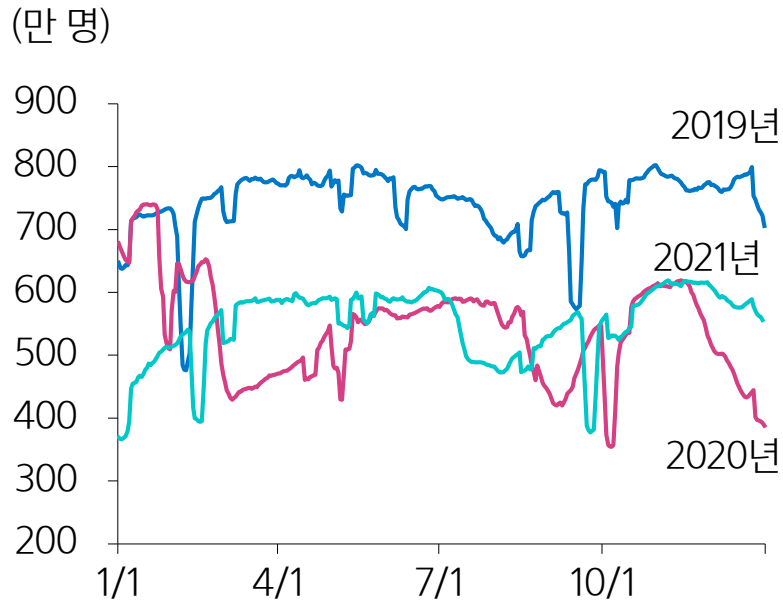


참고: 전기차 = EV + PHEV

자료: 각국 자동차 협회, 각 사, 삼성증권

2) Health Care → 개인차량 수요급증

서울 지하철 이용객



중국 대도시 지하철 이용객

(만 명, 7일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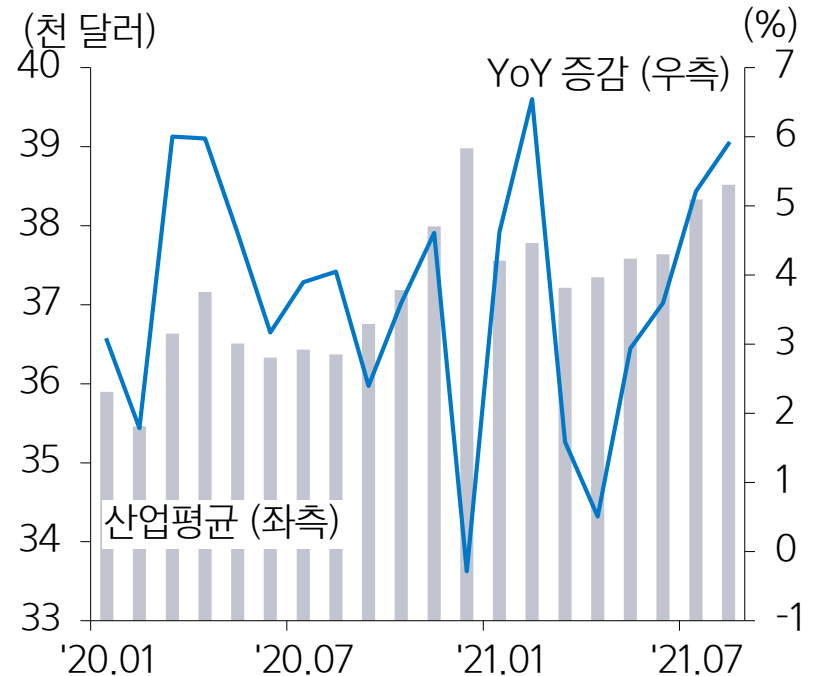
자료: Wind, 서울시, 삼성증권

3) 물류대란+ 반도체부족 → 자동차가격 상승

2021년 생산차질

(단위:천 대) 2019년 수요 업체 발표 비중(%)			
	수요	업체 발표	비중(%)
북미	18,885	2,918	15.5
유럽	15,804	2,413	15.3
중국	22,211	1,814	8.2
기타	31,756	1,944	6.1
총계	88,656	9,089	10.3

자동차 Transaction Price (미국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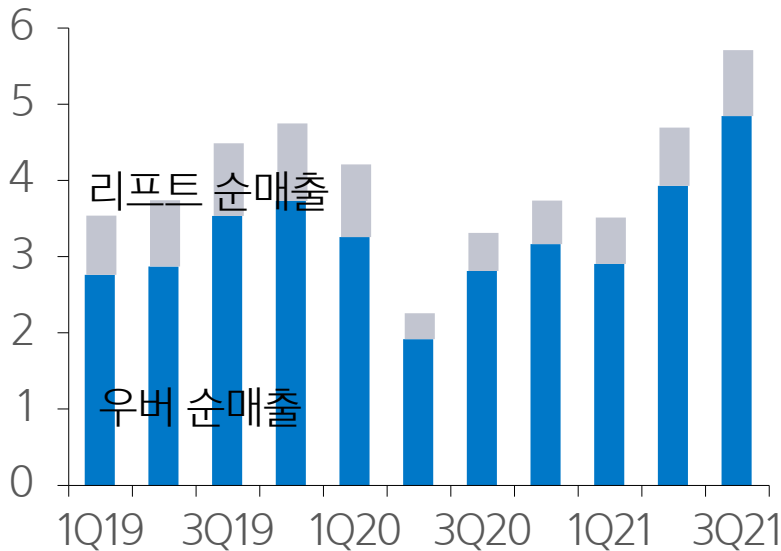


자료: Automotive News, 삼성증권

4) On-Demand(공유+배달) → 자동차가치 상승

공유 수요: 코로나이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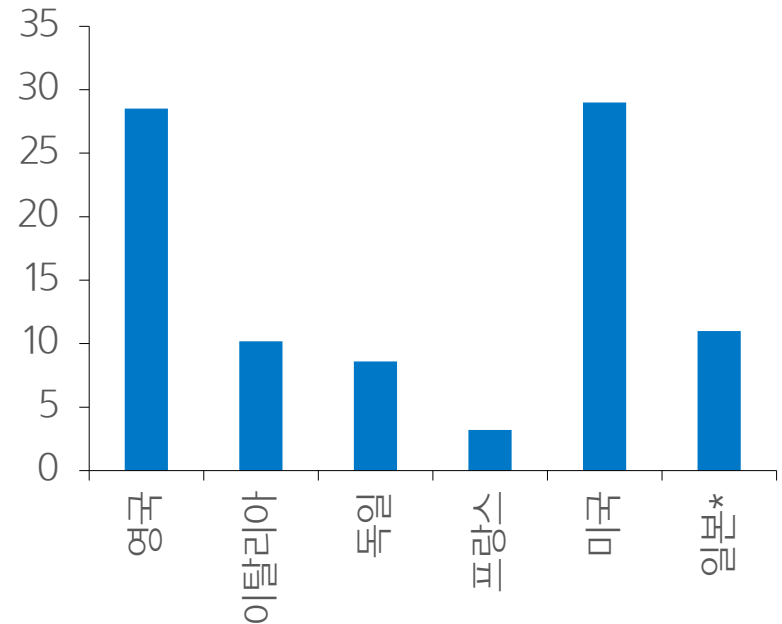
(십억달러)



자료: 우버, 리프트, 삼성증권

글로벌 주요시장 : 중고차 가격 상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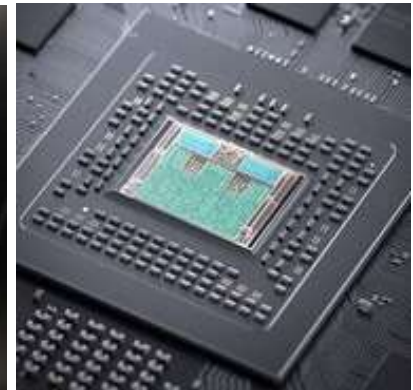
참고: 일본은 전년동기 대비, 나머지는 연초대비
 자료: 각국 언론, 자동차협회, 삼성증권

5) 비즈니스 모델 변화 → 제조에서 서비스

충전소: 서비스 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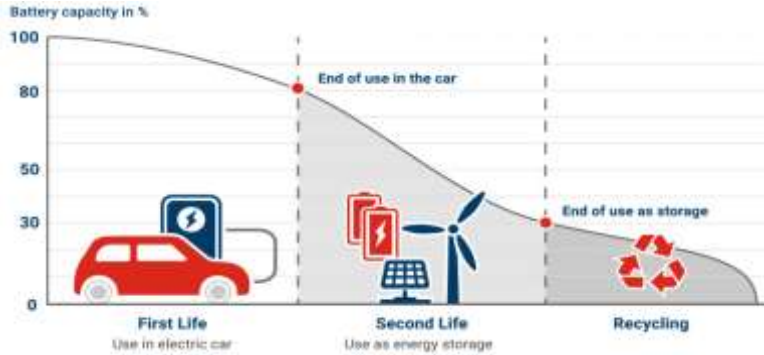
충전시간 + WiFi: 인포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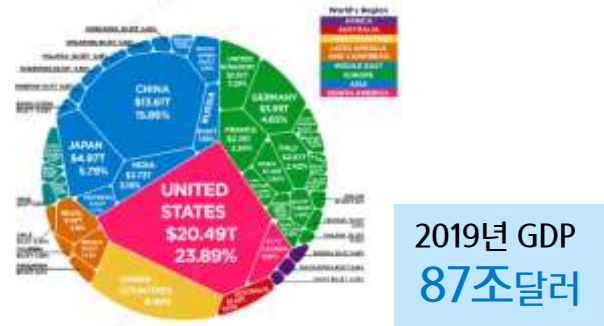
자료: 니오, 테슬라. 삼성증권

6) 비즈니스 모델 확장 → ESS, 물류 자율주행, 로봇, U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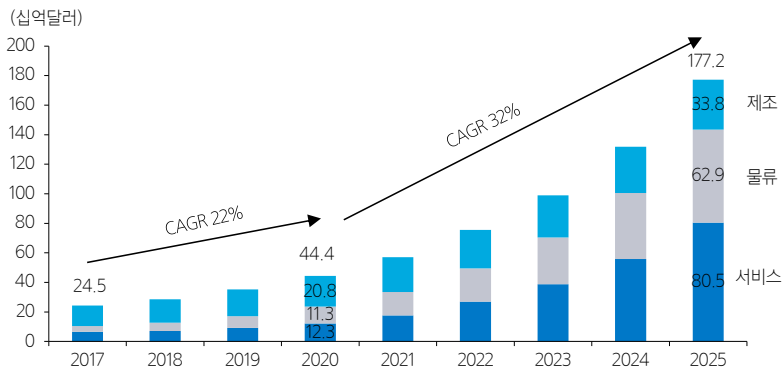
ESS : 2040년 1조달러



물류비 : GDP의 약 10%



로봇: 2025년 1,800억달러



도심항공: 2040년 1.5조달러



자료: 언론, 산업자료, 삼성증권

현대차: Metamobility

- 1 로보틱스 : 인간의 이동경험 영역 확장, 가상과 현실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체
- 2 Mobed와 DnL/ PnD모듈 공개, MS(클라우드 Azure)와 스마트 팩토리 협업
- 3 2022년 말 싱가포르 혁신센터 완공 예정: 도심내 스마트팩토리, 다품종 소량생산



자료: 현대차, 언론 취합,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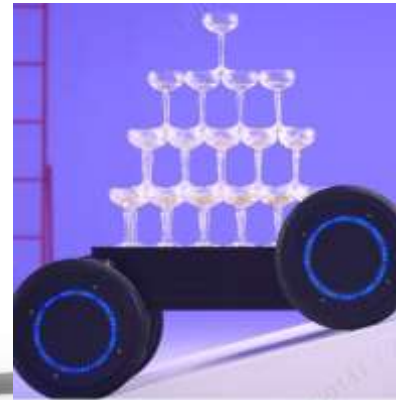
현대차 : MoT(Mobility of Things)

- ▶ **MobED(Mobile Eccentric Dorid)** : 모든 사물이 이동의 자유를 강조. 이동의 확장
 - **주요기술**: 인휠모터(각 바퀴마다 3개 모터 장착 : 동력, 조향, 몸체 독립 제어)로 사선주행, 360도 회전 가능
 - **PnD모듈**: 인휠모터, 스티어링, 서스펜션, 브레이크시스템, 센서 결합. 용도(Personal Mobility, 서빙, 물류 등)에 따라 몸체 결합
 - **DnL모듈**: 각 휠에 장착된 모터가 플랫폼을 들어올리는 것이 가능. 높낮이 조절, 경사에서 평행주행 가능

PnD모듈: Plug& Drive Module



DnL모듈: Drive & Lift Module



GM:CES 2021의 연장선

- 1 Ultium(EV하드웨어 플랫폼)+Ultifi(EV 소프트웨어 플랫폼)
- 2 차별화 1. Full Line-Up : 2025년까지 30개 EV(승용, SUV, 픽업, 밴, 트럭)
- 3 차별화 2. Bright Drop(밴, 물류로봇): Fedex, Walmart 고객확보

GM: Silverado EV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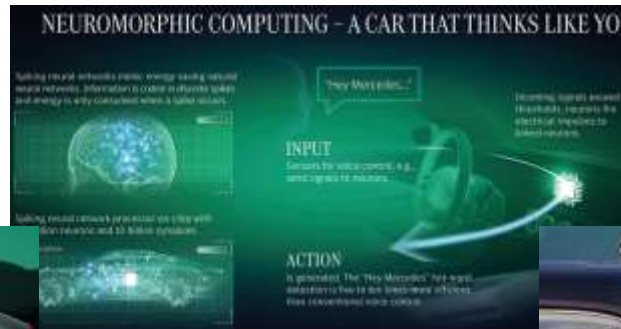


FedEx, Walmart 고객 확보



Benz: 비전 EQXX 컨셉카

- 1 주행거리 1,000km / 배터리 100KWh미만 및 에너지밀도 400Wh/L
- 2 경량화 기술: 타이어, 스피커, 공조, 플라스틱, 알루미늄 소재 적용
- 3 음성인식기술 업그레이드(브레인칩 협업)/ 새로운 UI와 3D 내비게이션



자료: CES 2022, 언론 취합, 삼성증권

BMW: ix M60

- 1 WLTP기준 주행거리 630km / 배터리111.5kWh / 200KW속도 80% 충전(31분)
- 2 8세대 iDrive 적용: 커브드 디스플레이, 강화된 Connectivity, FOTA
- 3 2022년 11월 출시 : xDrive40, xDrive50, M60



자료: CES 2022, 언론 취합,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월 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1월 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신뢰에 가치를 입혀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지점 대표번호: 1588 2323 / 1544 1544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S&P Global